

산사에 울려 퍼진 멋들어진 '禪律'

선시연구자 모임 경주 기림사에서 음악회

7월 4일 경주 기림사에서는 빗속을 뚫고 베토벤의 피아노 삼중주가 울려 퍼졌다. 우리나라 선시(禪詩)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경주 기림사 화정당에 모여 작은 산시음악회를 개최한 것.

이날 개최된 산시음악회는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웰리스트 홍지영,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현 한국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박은혜 씨가 출연해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 같이' 외에 베토벤 피아노 삼중주, 멘델스존 피아노 삼중주, 사라사테의 지고이네르바이젠(전시의 노래), 열가의 사랑의 인사 등을 연주했다.

또 선시연구자 모임 경희대 배규범 교수가 사명당 스님의 '정음 스님에게'라는 선시를 낭독해 대중들에게 선시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선시연구자 모임 회원들이 선(禪)과 클래식 만남을 일반화시키고 대중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음악회는 태종 민들레의 북상 소식에도 아랑곳 않고 달려온 200여명의 사부대중을 매료시켰다.

어떤 조명이나 장식도, 요란한 팸플릿 광고도 전혀 없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마련된 음악회였지만, 산중고찰의 단아한 자태 속에 울려 퍼진 클래식과 선시의 만남은 어느 음악회 못지 않는 감동을 자아냈다.

기림사 총무 각천 스님은 음악회에서 주지 종광 스님을 대신한 인사말을 통해 "음악회를 추진한 분들께 감사하며, 비로 인해 밖에서 진행을 못하고 실내로 옮겨 진행하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바라며, 마음에 행복을 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시연구자모임 이진오 회장(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은 "달그림자처럼 소리



경주 기림사 화정당에서 진행된 산시음악회.

사진=배지선 기자

없이 왔다가 사라지려고 하다가 음악회를 열면서 이렇게 알리게 되어 당황스럽지만, 기림사 스님들의 적극지원과 무료로 동참해 준 음악가 덕분에 클래식 음악과 선시를 산중고찰에서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선시연구자 모임은 선시연구를 통해 박사학위를 받은 학자들의 모임으로, 지난 1월 12일 대흥사에서 첫 모임을 가진 이후 두번째 모임을 갖게 됐으며, 우리나라에 약 10여명이 활동 중이다.

선시연구자모임 각석근 교수(동국대학교 국문학과 강사)는 "선시 연구는 한문학과 국문학의 중간 성격을 지니는 또 의미있는 장르인데 불구하고 학계에서 외면하는 경향이 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날 모임 선시연구자 모임 회원 6명은 음악회 후 기림사에 남아서 선시를 율독하고 감상하며, 선시 연구현황과 향후의 전개 방향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주=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한국불교, 정말 부러워요"

세계여성불자대회 참가자들 석남사·운문사 등 참배

태종 민들레의 영향으로 장대비가 쏟아지던 7월 4일, 티베트, 대만, 스리랑카, 인도 등에서 제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석했던 2백 여명의 여성 수행자들이 석남사·주지 영문사를 찾았다.

도착 후 대웅전에서 가진 환영 행사에서 석남사 주지 영문 스님은 석남사의 창건과 중수 등에 대해 설명하고 "비구니 수행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이곳 석남사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하며 오늘의 인연이 서로의 수행을 성장시키는 열매를 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점심공양 시간. 대중들은 공양을 마치고 주지 영문 스님과 함께 20여분간 참선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행정진 중인 금강선원 대중들의 수행 모습을 공개해 외국인 수행자들의 눈길과 심금을 불러 일으켰다.

석남사 선원장 법희 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차담시간. 울산차인연합회는 백련차, 말차, 송화차 등의 다양한 전통차와 다식을 외국의 여성 수행자들에게 선보였다. 백련차를 마시던 덴진 돌마 스님은 "한국



석남사 대웅전에서 열린 환영행사에서 주지 영문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천미희 기자

사람들이 너무 환영해주어 감명을 받았고 스님과 신도들의 결속이 아주 강하고 승가에서 잘 이끌어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역 자원봉사자는 석남사 방문에 앞서 가졌던 해인사 방문에서 돌마 스님이 팔만대장경을 참배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귀띔했다.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중앙승가대에서 열린 세계여성불자대회에 참가했던 2백여 명의 이날 석남사에 이어 운문사도 방문했다. 이에 앞서 해인사, 불국사를 참배하며 한국불교 문화를 체험한 이들은 5일 방남사를 끝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석남사=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통도사 전문노인요양원 상량

병실 15개 70명 수용... 11월 개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대표이사 현문)은 7월 3일 '전문노인요양원' 상량식을 가졌다(사진).

대표이사 현문 스님, 통도사자비원 원장 오심 스님을 비롯 1백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상량식에서 현문 스님은 "입적하신 율하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설립된 통도사자비원이 설립 이념에 걸맞게 한발 앞서가는 노인복지서비스를 펼치는 중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량식을 가진 통도사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은 2004년 3월 기공식을 갖고 대지면적 760평, 연면적 665평 규모의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로 건물 중앙에 햇빛이 들어오는 정원을 꾸며 놓았다.

총 15개의 병실에 70여 명의 중증 치매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

10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촉탁의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11월경 개원 예정이다.

배지선 기자

대불청 제23차 전국청년대회 불청대상에 전준호 회원 수상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정상욱)는 7월 3-4일 경남도립문화회관에서 '제23차 전국불교청년대회'를 개최했다.

대한불교청년회 경남지구(회장 이상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 경남불교연합회장 우담 스님, 대불청 경남지구 총재 통광 스님, 대불청 부산지구 지도법사 효선 스님 등 2천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3일, 식전행사에 이어진 전국불교청년대회 분행사는 대회사, 법어, 불청대상 시상 등으로 진행했다.

정상욱 회장은 "대한불교청년회의 위상은 매우 높고 확고하다"며 "앞으로 그 위상에 걸맞게 만해기념관 건립의 숙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불청대상은 전준호 직할 조계사청년회 회원이 받았고 경기지구가 최우수 지

구상을 진주불교청년회가 최우수 지회상을 수상했다.

천미희 기자

대구 교직원들 명상 연수회 통도사서 2일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를 통한 대구지역 교직원 명상연수회가 7월 3일부터 4일까지 1박 2일간 팔공산 동화사에서 개최됐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가 주최하고 전국교사불자 연합회 대구지부가 주관한 교직원 명상연수회는 교직원들의 심신수련과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소양육성을 위해 마련됐다. 전국교사불자연합회와 파라미타 지도교사 양성을 위해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회는 11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명상, 요가 강의와 실습뿐 아니라 화상들에게 요가를 지도하기 위한 실습 등이 결집하여 호응을 얻었으며 사찰문화재관람의 시간도 가졌다.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는 "이번 연수에 3백명의 신청자가 몰릴 정도로 불교명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연수회에 참석했던 교사 중 11명이 교사불자연합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박근혜 前대표 직지사 참배

한나라당 박근혜 前 대표가 7월 4일 김천 직지사를 비공식 방문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직지사를 찾은 박 대표는 선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는 경내 명부전을 참배하고, 산내 암자인 명적암으로 이동해서 직지사 회주 녹원스님을 친견, 점심 공양을 함께했다.

회주 녹원 스님을 친견한 박 대표는 "아버지가 머무셨고, 어른들을 모셔놓은 곳이라 고향에 오는 기분"이라며 "그동안 자주 오고 싶었지만 공인이고, 외인이다 보니 인사를 못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녹원 스님은 "나라를 위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모아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보광선원 요가교실 인기몰이

부산 보광선원이 열고 있는 '요심 스님과 함께하는 요가교실'이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매주 월,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보광선원의 요가교실에는 주부, 직장인, 학생 등 100여명이 몰려 요가를 배우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있다. 요심 스님은 한국명상요가센터 부산총지부 원장을 맡고 있으며 명상 요가로 요가가 곧 최고의



요심 스님이 보광선원 요가교실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요가를 가르치고 있다.

수행법이자 교화법이라는 점을 인식시켜 나가고 있다. 요심 스님은 "단순한 육체적 운동이 아니라 정신적 운동으로 번뇌 명상을 쉬어 주인공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명상 요가의 핵심으로 영원한 참 성품과의 결합을 위한 참선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051)517-6200

천미희 기자

郡에 교육발전기금 1억 기탁

부산 보광선원이 열고 있는 '요심 스님과 함께하는 요가교실'이 불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

매주 월,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열리는 보광선원의 요가교실에는 주부, 직장인, 학생 등 100여명이 몰려 요가를 배우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고 있다. 요심 스님은 한국명상요가센터 부산총지부 원장을 맡고 있으며 명상 요가로 요가가 곧 최고의

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지역학생 유치를 위한 명문고 육성방안을 세우고 2001년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기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기금은 봉화지역 5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기숙사 시설 완비, 장학금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3군 계통대 호국사서 합동법회 도문 스님 초청, 수행지도 받아



도문 스님이 초청된 대웅전에서 열린 합동법회 모습.

육·해·공 3군의 불자장병들을 위한 3군 합동 고승초청법회가 7월 4일 계통대 호국사(주지법사 장성화)에서 열렸다(사진).

대신성가사 조실 도문 스님을 법사로 모신 이날 법회에는 육·해·공군 불자회원, 군장병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도문 스님은 참석된 대중에게 용성 스님이 번역한 <육자경대명왕경>을 나눠주고 주력수행을 직접 지도했다. 박봉영 기자

불기 2548년 신흥사·청소년 수련원 여름수련법회

- 부처님을 우러르는 신심과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과 내 이웃을 감싸이는 봉사로 -

제53차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	제 46차 청소년 여름 수련법회	제 27차 성인 여름 수련법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불기2548년 7월 28일~30일 (2박 3일) 대 상 : 초등학생 (유치원생도 가능) 회 비 : 30,000원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퍼(갓별탐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불기2548년 7월 23일~26일 (3박 4일) 대 상 : 중·고등학생 회 비 : 35,000원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슬리퍼(갓별탐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 시 : 8월 14일~15일 (1박 2일) 대 상 : 일반인 (대학생도 가능) 회 비 : 20,000원 준비물 : 공양미 1봉투, 필기도구, 세면도구 * 법복 준비되어 있음 (수련법복 안에 입을 내외)

- 서해안 제부리섬 갯벌탐사와 자연보호 활동
- 성인수련 중 성인수계식을 통해 조계종 신도등록 시 필요한 법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통안내: 수원역전 택시 승강장 아래 대학교 버스 서는 곳 못 미쳐서 서신행 좌석버스(400-1번, 490번, 999번) 신흥사 입구에서 하차 (절 보임) 서울, 안산쪽 1호선 금정역 농협 앞 330번 타고 신흥사 입구에 하차(절 보임)

* 수련정보는 신흥사 홈페이지 www.shinheungsa.or.kr 검색엔진에서 '화성 신흥사'를 한글로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전자메일 buruna48@hanmail.net

전화: (031) 357-3916·2695 팩스: (031) 357-8687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 42-1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 수련·불교대학 체험기

성일 스님 역임 | 값 9,500원 | 신국판 | 392쪽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인 줄 처음 알았고, 부처님이 참으로 거룩하시고 그 가르침이 훌륭한 걸 처음 알았다. 그 위대한 불교를 믿는 불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또한 바르고 밝게 살아갈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게 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제일 행복하다..."

어린이불교학교, 청소년·성인 수련대회 참가자, 그리고 불교대학 졸업생들이 남기고 간 소중한 350여 편! 더불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불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불교계에, 스님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불교학교나 수련대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 책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보면 절로 행복해지고, 진정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성일 스님은 '내 성불 한 생을 늦추더라도 이 생은 포교하리라'는 원력으로 1973년부터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시작, 해마다 3000여 명의 수련생을 배출하고 수많은 법회와 대중교화에 온 힘을 쏟고 계시다. 신흥사 내에 수련원 건립의 원을 세우고 두문불을 10년 기도를 회향하고 1,000여 명의 청소년 수련원을 건립하였으며, 1년 365일 법회와 수련회를 찾아오는 수많은 불자들의 몸과 마음에 부처님의 향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다.